

2021년 2월 7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예수님, 공회 앞에 서시다 Jesus before the Council
마가복음 Mark 14:53-65

53.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And Peter had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was sitting with the guards and warming himself at the fire.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Now the high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And some stood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Yet even about this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But he remained silent and mad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the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And the high priest tore his garments and said,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64.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You have heard his blasphemy. What is your decision?” And they all condemned him as deserving death.
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And some began to spit him, saying to him, “Prophecy!” And the guards received

him with blows.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기 전에, 말하자면 “예비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공회였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까지 판결할 권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세운 계획은 “죽여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비재판을 통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비재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며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성경말씀의 참 뜻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모세 때 바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은 물론 그 나라 애굽의 파멸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계획과 실행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되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존한 것은 로마의 법입니다. 일종의 “치안유지법”으로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하게 한 기획한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법”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 군중들을 저들 편으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반란”이 예상되므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준 유언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53.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공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And Peter had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was sitting with the guards and warming himself at the fire.

제자들 중 베드로는 아주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그리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아랫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Now the high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대제사장들이 주도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거짓증언이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And some stood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했습니다.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요한복음 John 2:19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Yet even about this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요한복음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요한복음 John 2:21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When therefore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요한복음 John 2:2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기억하고, 그리고 믿게 된 그 말씀의 뜻을 유대인들이 어찌 기억하고 알았겠습니까?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이런 거짓증거가 난무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But he remained silent and mad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그런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이사야 Isaiah 53:7

침묵을 깬 것은 오리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the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대답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구약성경의 성취였습니다.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And the high priest tore his garments and said,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64.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You have heard his blasphemy. What is your decision?” And they all condemned him as deserving death.

죄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을 때부터 이 죄목은 예상된 바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I and the Father are one.

요한복음 John 10:30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The Jews answered him, “It is not for a good work that we are going to stone you,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being a man, make yourself God.”

요한복음 John 10:33

다만 그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 편에 섰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중심한 산헤드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이 재판은 거짓입니다.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며, 판결자가 공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그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다니요!

-이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나?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와 수평선상에 두고 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누구도 속량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다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악이 승리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본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When therefore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요한복음 John 2:22

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And some began to spit him, saying to him, “Prophecy!” And the guards received

이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마태복음은 “선지자 노릇”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붙입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Saying, “Prophecy to us, you Christ! Who is it that struck you?”

마태복음 Matthew 26:68

마태복음은 “얼굴을 가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얼굴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친 것인지 알아맞히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침묵으로써 순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재판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모욕을 견디셨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에 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이사야 Isaiah 53:10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시작한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길을 순종으로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히브리서 Hebrews 3:1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받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